

법사위 국감은 매일 '추미애 공방중'

국민의힘 "추, 거짓 진술"…여 "무혐의 인정하라" 고성
여야, 라임·옵티머스 사태·北 피살 의혹 '창 vs 방패' 대결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여당이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서자 '방탄국감'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추 장관에게 "아들 병가와 관련해 보좌관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에게 대위 연락처를 준 카카오톡 메시지가 나왔다"며 "거짓 진술한 것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이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당시의 일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전 의원은 "이게 28번째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4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느냐. 저도 보좌관과 얘기가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끼어들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말끝마다 개입해서 추 장관 답변을 왜 자기가 하느냐"며 질의를 방해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다시 "수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책 질의는 하지 않고 추 장관 사건으로만 계속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야당을 비난하자, 이번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국회에서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는데 안 묻는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이냐 법무부 직원이냐. 이를 방해하는 건 방탄국감"이라고 가세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군 시절 특혜휴가의혹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장편소설을 쓰려고 하나"라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아들과 관련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도 "지엽적인 질문을 (답하는) 것은 피차 똑같아지기 때문에 삼가겠다"고 말했다.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권력형 금융비리 사건을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보고 없이 끊겠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 인사들이 투자자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권력을 동원했다"며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팀플레이를 펼친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도입을 거론하자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규정하면서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순직 인정 여부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사망 공무원이 월북 중 피살이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겠느냐"고 따졌고,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순직이라는 입증 책임을 유족에게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게 어려워"고 제안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강기정, 김봉현 고소장 접수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2일 오전 라임자
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도착, 취
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당 쇄신작업' 혁신위 설치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회 설치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12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낙연 대표가 혁신위 설치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민주당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스스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해보자고 밝힌했다"고 전했다.

혁신위가 꾸려진다면 내년 4월 재보선,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에 대비한 장기적인 당 쇄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의 정책 의제를 정비하고 윤리 규정 강화 같은 조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 구성에 이어 당내 기풍 잡기에 속도를 내는 것에만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서 '김상곤 혁신위'를 사례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끈 혁신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2015년 민주당에 마련된 혁신위다. 그러나 당시 야당으로서 선거연파의 나락에 빠졌던 2015년과 거대 여당까지 된 지금의 상황이 다른 데다, 당내 제도개혁 과제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점에서 혁신위의 존재 이유를 두고 이견이 제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진석 "자동차안전단속원 13명으로 불법 단속 역부족"



옆에 지지대 용도로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런 불법
장치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 위로 떨어질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문 의원은 "국토부가 10월 5일 공단의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
겠다고 하지만 말뿐인 대책"이라며 "현재
공단의 단속원 수자는 13명뿐이다. 13명
으로 단속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증-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연마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냉암공원 앞 위치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여의도 브리핑

김원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회수율 30% 불과"



며, 건강기능식품
목별로는 총 4997건
의 이상사례가 접수
됐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건
강기능식품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지만
문제가 있는 제품들의
회수율은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각종 부작용
을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
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회수실적 제고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돼지등급판정, 품질향상·가축개량 효과 미미"



받은 돼지의 비율 변
화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2014년 23.8%였
던 1+최고등급 돼지
는 2018년에
29.6%,로 5년동안
1.3% 증가에 그쳤다.

같은기간 등외를 제외하고 최하위등
급인 2등급은 32.0%,에서 31.8%로 변
화했다.

김승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 잘못해 예산 낭비"



5000만원에 판매했
으며, 상태가 좋지
못해 판매하지 못한
1000톤의 감자는 3
억원의 폐기비용을
추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승남 의원은 "농산물 가격조절을 목
적으로 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예산이 낭비되어
서는 안된다"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
로 수매한 농산물에 대한 처분계획을 사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광주·전남 기상관측장비 15% 내구연한 초과"



(2020.8) 총 77건으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현재까지 지상에 운
용하고 있는 자동기
상관측장비 101개
이다. 이 가운데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장비가 15%인 총
15개에 달했다. 올해에만 20%인 21개
가 내구연한이 끝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